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분석*

- 김명순에 대한 미디어테러 1백년의 뿌리

서정자**

차례

1. 들어가며.김명순에 대한 미디어테러 원류
2. 토월회 시절과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 2.1. 피부로 여성을 가른 김기진과 中西伊之助
 - 2.2. “서푼짜리 문사의 머리에 바늘을 꽂으라”
 - 2.3. 김명순에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 낙인
 - 2.4. 살아남기 위해 낸 『생명의 과실』
3. 대항서사 『탄실이와 주영이』
4. 공개장에 대한 백년만의 반론.나오며

〈국문초록〉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은 김명순에 대한 미디어 테러의 원류다. 김명순은 일차, 일본에서 국정여학교에 재학할 당시 일본육사출신 이용준소위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한다. 이때 『매일신보』의 보도는 미디어폭력이었다. 그러나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은 일차 미디어 폭력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김명순의 삶과 문학에 상처를 입힌다. 이 공개장 사건으로 인해 김명순은 작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 년여 동안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매장되어야 했다. 지금까지 김기진의 공개장은 단지 기생출신 소설의 딸이라는 김명

* 이 논문은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여기자협회 등이 후원하여 2017년 12월12일 열린 김명순 등단백주년 기념학술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초당대 명예교수

순의 신분에 따른 가십 정도의 글로 이해되어 왔으나 사실은 김명순의 문학과 삶에 치명상을 준 계획적인 음모였다는 점에서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 본 결과 우선 다음 네 가지의 비윤리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김기진은 김명순을 죽이기 위해 여성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될 성폭력의 수사학을 썼다. 김명순의 문학을 나이로 치면 30대내외의 중년여자, 피부로 치면 육욕에 거친, 운택하지 못한, 지방질은 거의 다 말라 없어진, 퇴폐하고 황량한 피부가 겨우 화장분의 미술에 가려져 나머지 생명을 복돋워가는 그러한 피부에 비유하여 성 폭력적 모독의 수사학을 구사했다. 둘째 이 피부에 대한 비유는 바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여등의 등 뒤에서』의 비유의 표절이었다. 셋째 김기진은 임노월 김억 등 유태주의 예술관을 지닌 문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타깃으로 김명순을 택했다. 이것이 공개장의 계획적, 음모적 부분인데 남성작가를 겨누는 것보다 당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순과 『신여자』를 발행한 김원주 두 여성 문인을 택하여 공격의 효과를 노렸다. 문장에서 차고 넘치듯이 이는 여성 혐오와 여성평하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넷째 김기진은 공개장에서 『피를 뺏는 여자』를 김명순이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찾아보니 두 사람은 도쿄에서부터 함께 한 토월회 회원이었으며 김기진은 김명순의 재능을 익히 알았을 터인데도 김명순문학을 죽이려 나섰다. 김명순과 김원주가 유태주의 작가 임노월과 동서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깔고 두 여성작가를 조롱하고 짓밟음으로써 임노월 등 유태주의문학을 멸절하고자 한 기획이었다. 김명순은 이로써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가 되어 백 년 동안 매장되어야 했다.

핵심어 : 김기진, 김명순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성폭력적 수사학, 미디어테러, 나카니시 이노스케, 토월회, 유태주의작가, 임노월, 『탄실이와 주영이』

1. 들어가며-김명순에 대한 미디어테러 원류

미디어 테러¹⁾라는 말을 썼다. 인도여성들이 염산테러를 당하고 상처받은 얼굴을 들고 세계여성폭력철폐의 날 기념 패션쇼 런웨이에 나란히 선 사진을 보고 서였다. 11월25일은 세계여성폭력철폐의 날이다.²⁾ 김명순이 당한 「김명순에 대한 공개장」의 경우도 폭력보다 테러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됐다. 테러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다. 폭력을 써서 상대편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테러라는 단어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테러였다. 1924년의 김명순은 그의 문학인생에서 전성기에 있었다.³⁾ 1921년 겨울 일본에서 돌아온 김명순은 소설 「칠면조」 발표에 이어, 시와 번역 시와 번역소설을 발표하는 한편 희곡 「어룻자식」과 주목되는 소설 「선례」를 2회연재하고, 1924년에 들어서는 시 15편, 수필 4편, 번역시 5편과 장편소설 『돌아다 볼 때』 『외로운 사람들』 『탄실이와

1) 필자는 2010년 쓴 논문에서 『매일신문』과 『신여성』 『개벽』 등의 매체에 의해 김명순이 입은 피해를 ‘매체폭력’이라는 단어로 규정한 바 있다. ‘미디어테러’는 ‘매체폭력’보다 강한 톤의 용어를 쓰고자 필자가 인도의 염산테러 사건에서 연상해 고안한 단어다. 미디어테러는 매체 즉 미디어가 나서서 가해를 하는 경우다. 매체 즉 미디어를 통해 폭력을 가함으로써 김명순은 염산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에 비할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작가활동을 거의 중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백여 년을 김명순은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이러한 오해와 저주는 끝없이 재생산되게 하였으므로 테러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매체폭력에 관하여는 서정자, 「축출과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김명순의 문학」 『세계한국어문학』 제 4집 2010, 20~21쪽.

2) 남편이나 가까운 가족 등으로부터 산성물질 공격을 당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인도 여성 9명이 패션쇼 무대에 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탈리트 호텔에서 이 여성들이 로힝 발, 라나 길, 아르체나 코차르 등 인도 유명 디자이너들이 기부한 의상을 입고 모델로 나선 패션쇼가 열렸다. 이들은 모두 상처 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어 내려갔다. 『한겨레신문』 2017.11.27.

3) 남은혜는 김명순의 문학 활동을 1917년부터 23년까지를 첫 시기로, 1924년부터 26년까지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전성기로, 1920년대 후반을 쇠퇴기로, 1930년 이후를 마지막시기로 나누었다. 남은혜, 「김명순문학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19쪽.

주영이』 3편을 잇달아 연재 발표한다. 대단한 필력으로 김명순문학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중에 김기진은 『신여성』의 편집기획 ‘신여성인물평’의 첫 대상으로 김명순을 지목하여 공개장을 써서 김명순 문학 활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후 김명순은 장편소설을 쓰지 못하며 왕성하던 작품 활동은 그 날개가 꺾이고 만다. 김명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며 김기진은 왜 이런 테러를 감행했던 것일까. 지금까지 김명순연구자들은 김기진의 공개장을 김명순의 출신성분을 중시하여 인신공격을 한 글 정도로 이해했을 뿐 김기진의 글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다. 이 글은 김기진의 공개장이 김명순을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로 못 박는 미디어테러의 뿌리라는 전제아래 그 음모와 기획을 밝히고 김명순이 말하고자 했을 반론을 엮어본다.

김명순의 소설 『선례』 전편을 발굴하여 기왕에 알려진 『선례』 후편과 이어 읽으면서 김기진의 공개장은 김명순의 『선례』 죽이기, 유타주의 문학 멸절 기획의 일환이었음을 밝혔지만⁴⁾ 김기진의 공개장의 내면에까지 깊이 살피지 못했다. 일찍이 방민호교수가 임노월의 예술지상주의 문학론을 소개하면서 김기진이 쓴 김일엽, 김명순의 공개장이 유타주의 문학론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지적한 데서⁵⁾ ‘김명순 죽이기’로서 김기진의 공개장이 지닌 ‘저의’를 살필 수 있었으나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은 김명순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김명순 문학연구의 일환으로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을 분석하기 위해 쓰인다. 김기진은 공개장에서 김명순의 작품 중 하나로 소설 『피를 뺐는 여자』를 거론하면서 김명순이 그 앞에서 낭독해 들리던 것이라고 했다. 김명순의 작품연보에 없는 소설 『피를 뺐는 여자』의 존재를 확인

4) 서정자, 『김명순의 발굴소설 『선례』고』, 제10회 소영 박화성문학페스티벌, 김명순 탄생 12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2016. 10.22. 발표논문자료집. 『여기』, (사) 부산여성문학인회, 통권 32호, 2017. 봄호, 38~55쪽.

5) 방민호, 『사랑과 절망과 도피의 로망스-한국 최초의 예술지상주의자 임노월소설 집』, 임노월소설집 『악마의 사랑』 해설, 향연, 2005.10.24, 159~162쪽.

하기 위해 김기진과 김명순의 접점을 추적하는 중에 지난 연구에서 읽은 김기진 외에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김기진의 ‘저의’가 보다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신여성인물평은 모두 세 사람에게 쓰였는데 김기진은 김명순과 김원주, 두 신여성에게 공개장을 썼으며 최승일은 여성독립운동가 권애라에 대해 『여성전선 권애라씨에 대한 공개장』을 썼다. 권애라는 여성 독립 운동가였던 때문인지 ‘본체 전문-56항부터 60항까지 삭제’ 표시만 실린 채 빈 페이지로 나왔다. 한 달 전부터 예고 된 이 기획은⁶⁾ 편집인이 방정환인 『신여성』에 실린 것이고 목차를 보면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필자는 金基鎭으로, 김원주에 대한 공개장 필자는 김기진으로 했으며 같은 호에 실린 김명순의 수필 『렐 없는 이야기』⁷⁾의 필자는 金一蓮으로 되어 있다. 목차에는 金一蓮으로 하고 본문에서는 一蓮이라 써서 본명이 아니고 필명인 것을 짐작케 한다. 망양초 김명순의 필명이 金一蓮, 또는 一蓮으로 표기된 것은 이 경우뿐이다. 이 수필 『렐 없는 이야기』가 김명순의 『생명의 과실』에 실린 『대중없는 이야기』와 동일한 작품인 것은 『김명순 문학전집』 편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혜가 발견한 것이다.

『신여성』의 편집인 아동문학가 방정환은 ‘여학생 뒤 탐정’이라 해서 주로 신여성 힘을 잡는 칼럼 ‘은파리’ 필자인데 『개벽』 편집실로 가기 전인 1920년 김일엽이 발행한 『신여자』의 편집 실무를 맡아 『신여자』로 하여금 의외로 여성해방 성격에 소극적인 잡지가 되게 한 인물이다.⁸⁾ 문제의 『신여성』 제10호(24.11)에 김명순의 수필이 김일련의 필명으로 실려야 한다고 편집자는 필자에게 어떻게 양해를 받았을까? 김명순에 대한 공개장이 실린다고 말을 했을까? 김기진의 공개장 내용을 알고서 김명순에게 필명으로 수필을 신자고 했을까? 이 정황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

6) 공개장특집호답게 일반 독자들의 공개장도 투고형식으로 받아 실었으나 김기진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미디어테러를 하는 글은 아니다.

7) ‘렐 없는’은 ‘대중없는’의 방언이 아닌가 한다.

8) 서정자, 『일엽 김원주·『신여자』. 그의 사상 다시 읽기』, 『나혜석연구』 제2집, 나혜석학회, 2013.6.30, 33~73쪽.

치 범죄현장을 보는 느낌이다. 공개장 기획에서부터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내용과 편집에 이르기까지 편집자와 집필자의 의도가 면밀하게 얽혀있다.

1차 일본 유학 시에 당한 데이트폭력도 테러에 버금한 것이었거니와 이를 여러 차례 실명으로 보도하여 김명순을 정조 잃은 처녀로 생매장한 『매일신보』의 태도는 미디어 폭력이 아닐 수 없으나⁹⁾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은 이보다 더욱 김명순의 문학과 삶에 치명타를 안긴 미디어 테러였다. 이 김기진의 공개장 테러가 없었다면 김명순문학은 얼마나 더 찬란히 꽃 피웠을까! 김명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 공개장이 쓰이고 발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김명순과 김기진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가. 김기진은 토월회를 만들기까지 이야기를 쓰면서 탄실 김명순이 일시 준회원으로 두 차례나 참석한 일이 있다고 썼다.¹⁰⁾ 신혜수는 김명순과 토월회의 관련에서 이 김명순이 배우 김명순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잘못이다. ‘탄실’ 김명순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임노월과 함께 왔었다고 하여 탄실 김명순과 김기진이 토월회로 동경에서 두 차례 만난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김기진과 김명순의 만남에서 시작하여 『김명순에 대한 공개장』을 쓴 김기진의 내면풍경을 좇아 김명순문학에 대한 테러 전후를 밝혀 김명순이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라는 낙인에 대한 무고(無故)를 증명할 것이다.¹¹⁾ 거의 백년만의 반론이다.

9) 이에 대해서는 임종국, 『모델소설과 작가의 기능』, 『한국문학』 1976.8, 최혜실, 『신 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서경자, 『축출과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김명순의 문학』, 『세계한국어문학』 제 4집 2010., 20~21쪽.

10) 김기진, 『우리가 걸어 온 30년』, 『김관봉문학전집』 II. 회고와 전망, 문학과 지성사, 1988, 131쪽.

11) 김명순은 이 공개장이 발표된 후 『김기진씨의 공개장을 무시함』이라는 반박문을 써서 다음호 『신여성』에 실게 되어 광고(『개벽』)까지 나갔으나 다음호에 실리지 못한 채 출판되었고 편집후기에서만 양해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2. 토월회 시절과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2.1. 피부로 여성을 가른 김기진과 中西伊之助

김기진은 글의 모두(冒頭)에 김명순의 시 「꿈」을 올려놓고 작가 평하
부터 시작한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시에 쓰인 거와 같이 착한 처녀 착
한 처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보증할 수 없으나” “어찌했던” 조선이 낳아
놓은 드문 문학여성의 시요, 이 시의 작자는 그 드문 문학여성 중의 한사
람 김명순씨다… 시의 필자 김명순을 시인이 아니라 ‘이 시를 쓴 사람’으
로 비하하여 부른다. 이어 김기진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했다는 평을
끌어댄다. 이 시에서는 “여편네가 경대 앞에서 가루분을 바르고서 일어설
때에 앞 치맛자락의 분가루가 날아 떨어지는 냄새, 그 냄새가 나는 것 같
다.” 그리고 이를 김명순의 시를 어느 정도 제대로 말한 것이라고 한다.
‘분(粉)’냄새는 김기진이 김명순의 시를 타락한 여자와 동격으로 놓기 위
해 끌어온 비유어이다. 김기진은 여성을 나이, 피부에 비유하여 김명순
시를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김명순의 시는

연령에 비하여 말하면 어디로 보든지 17,8 내지 20전후의 여자가
아니라 30내외의 중년여자라는 것이 가하고 피부에 비하여 말하면
남자를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는 기름기 있고 윤택하고 보드랍고 폭
신평신한 피부라고 하느니 보다도 오히려 육육에 거친, 윤택하지 못
한, 지방질은 거의 다 말라 없어진, 퇴폐하고 황량한 피부가 겨우 화
장분의 미술에 가려서 나머지 생명을 복돋워가는 그러한 피부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¹²⁾

생물학적 성으로 여성을 논하는 것은 당시 남성들의 통념이니 그렇다

12) 김기진,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11, 47쪽.

치고 김기진의 문장은 성희롱이다.¹³⁾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운택하고 보드랍고 폭신평신했던 피부’의 시가 아니고 ‘육육에 거친’, ‘운택하지 못한, 지방질은 거의 다 말라 없어진, 퇴폐하고 황량한 피부’가 겨우 화장분의 마술에 가려서 나머지 생명을 복돋워가는 그러한 피부’의 시라고 한다. 또 다른 시 『기도』의 한 연을 놓고 이 역시 분 냄새가 나는 시의 일종이며 누가 보든지 순실한 처녀 혹은 여자가 정성껏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거친 생활을 계속하는 타락한 여자’가 새로 마음을 고쳐먹고 거울 앞에 앉아있는 그런 무드가 많이 있다고 했다.¹⁴⁾ 이미 정조를 잃은 여자로 신문에 광고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내쳐진 김명순이 아닌가? 그 상처에 대고 다시 상처를 들쭉시는 글을 쓰고 있다. 김기진이 김명순을 미디어를 통해 죽이기 위해 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차릴 것이다.

김명순의 시가 이런 테러를 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기 전에 이 피부의 비유는 바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에 나오는 비유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을 감격케 했다는 『너희들의 등 뒤에서』의 주인공 권주영의 남편 조성식은 독립운동을 한 날 영웅심으로 해 온 부정적 인물이다.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 주영이를 자기 손에 넣고 나서 그녀의 ‘살갓’을 맞본 순간 실망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같은 민족의 처녀다운 향기로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래 타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13)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외국어 표기 | 性戲弄(한자) sexual harassment(영어),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421&cid=43667&categoryId=43667>).

14) 김기진, 앞의 글, 같은 쪽.

그곳 매춘부들의 살밖에 알지 못했다. 그랬기에 모국에 돌아온 첫 번째 희망은 그것을 마음껏 맛보는 일이었다. 돌아오자마자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 그 여자였다. 그러나 나는 첫걸음에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물론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몸이 그 정도로 퇴폐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지금 처녀의 몸에 얼마나 굶주려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그 여자를 버려도 좋다. 다음에 그 여자를 대신해서 좀 더 기름지고 좀 더 포근하고, 좀 더 매끈한 멋진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면……. 15)

조성식은 여성을 피부로 니눈다. 처녀의 그것과 퇴폐한 매춘부의 것으로. 김기진이 김명순의 시를 평가하는 기준과 어쩌면 이렇게도 똑 같은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의 주인공 권주영은 김기진이 사랑하고 아껴 마지않는 여성이다. 그 권주영을 조성식의 눈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그린 묘사를 김명순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나이가 30에 가까운 여자는 퇴폐한 여자이자 생명이 끝난 여자이며, 오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기름지고 포근하고 매끈한···피부를 가진 처녀를 생의 목표인양 갈구하는 것이 소설 속의 소위 독립운동을 한다는 모든 남자들의 모습이다.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소설의 남자들만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자연과 여성을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만 보는 독특한 시각으로 소설을 썼다. 자연도 여성처럼 타자인 것을 그는 남성 우월적 의식으로 감득한 것일까?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이 소설을 이렇게 시작한다. “밤이 깊었다. 익사한 미인의 살갓을 보는 것처럼 그저 시뻘썩게만 보이는 눈 덮인 황야가 끝도 없이 이어져있었다···.” 피부로 비유하기를 즐긴 이 작가는 남자들을 한 결 같이 여성을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만 보게 한다. 긍정적 인물인 신춘용마저 그렇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신의 정부인 애란에게 O, Fresh Wine-skin For Me!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15) 나카니시 이노스케, 『너희들의 등 뒤에서』, 박현석 역, 현인, 2017, 314~315쪽.

떠난다. 역시 스킨이다. 그러나 이 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뜻으로 성적인 의미의 스킨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위해 탈출하는 권주영을 따라가겠다는 의미다.

김기진과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반 제국주의자이지만 여성을 철저히 타자화한 내부 식민주의자들로서 여성에 대한 편견-여성혐오의식, 또는 여성혐오-이 극심했기 때문에 김기진은 김명순에 대한 공개장에서 서슴없이 미디어 테러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김명순은 피지배자 여성이며 타자이다. 남성은 지배자이며 1자다. 그의 눈에는 여성이면 타자일 뿐 작가이거나 시인이거나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일까.

2.2. “서푼짜리 문사의 머리에 바늘을 꽂으라”

김기진은 이런 여성비하의 나이와 피부 비유로 김명순의 문학을 퇴폐의 미, 황량의 미로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비판을 시작한다. 유타주의의 비판이다. 김기진이 김명순에게 공개장을 쓰는 목적이 이에 있었기 때문이다.¹⁶⁾ 생명은 조잔(凋殘)하고 심장은 고갈(枯渴)하고 피부는 황량하고 정서는 거칠고 심금은 무디나 다만 히스테리컬로 발달된 그 심정이 때로 울고 때로 부딪고 때로 옛날을 추억하고서 헛되이 과거의 재현을 노력하며 혹은 동경하는 그러한 자태가 나타난다고 했다.¹⁷⁾ 시뿐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라며 김명순의 작품을 나열하는데 소설 『칠면조』 『주영이와 탄실이』(제목이 잘못 쓰였다) 『외로운 사람들』 『선례』 『피를 뿜는 여자』 등과 각본 『어붓자식』을 쓰고 이 중에서 읽은 것은 『어붓자식』 밖에

16) 서정자, 「김명순의 발굴소설 『선례』고」, 제10회 소영 박화성문학페스티벌, 김명순 탄생 12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2016. 10.22. 『여기』, (사)부산여성문학인회, 통권 32호, 2017. 봄호. 38~55쪽. 이 글에서 김기진이 공개장에서 『선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타주의를 멸절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았다. 『조선일보』, 『한국 최초 근대 여성 소설가 김명순 단편 발굴』, 2016.10.20. 보도; 『여성신문』 『근대 첫 여성소설가 김명순 “가부장제 도전 대항문학의 기수”』 2017.1.29. 참조.

17) 김기진, 「김명순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11, 47쪽.

없다고 했다. 그런데 『피를 뽑는 여자』는 그 앞에서 김명순이 낭독해 들리던 것이라고 한 것이다. 김명순의 소설이라는 『피를 뽑는 여자』는 김기진이 언급한 외에 어느 곳에서도 이 작품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연구자는 이 소설이 매우 궁금하다. 그런데 김기진은 ‘소설’이라고 했고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김기진과 김명순은 토월회를 만들 때 만난 적이 있었다. 『김팔봉문학전집』을 보면 상당히 여러 곳에서 토월회를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김명순의 이름을 언급해서 김기진과 김명순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21년 가을에¹⁸⁾ 김기진은 도쿄의 보인학사 2층에서 박승희와 한 달에 한 번씩 자작을 낭독하고 상호비평을 하는 모임을 갖기로 한다. “이때 모인 동인이 이서구 박승목 김명순 연학년 그리고 나의 형님 김복진 이제창 박승희와 나 이렇게 8인이었다.”¹⁹⁾ 이 글은 토월회를 시작하기 전 그들은 분명히 자작 낭독과 상호비평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명순은 이 자리에서 소설 『피를 뽑는 여자』를 낭독했을 가능성이 있다.²⁰⁾ 김기진이 이름을 지은 토월회는 치츄

18) 김기진, 『팔봉 김기진씨의 서한』, 『삼천리』, 1938.10, 84~87쪽. 월탄 박종화에게 쓴 편지를 보면 김기진은 토월회가 1921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여기서 ‘토월회’라는 회를 시작한 이야기는 일찍이 기회가 없어서 형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편지는 1922년 3월22일 편지에 이어 쓴 편지로 일전에 드린 편지...라 해서 제2신이다. 그러므로 토월회는 1921년 가을에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김기진이 『나의 ‘토월회’시대』에서 김명순은 그해 겨울에 귀국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명순의 귀국시기가 그동안 분명치 않았는데 이로써 1921년 겨울에 귀국한 것이 분명해졌다. 김기진은 토월회의 첫 모임의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왔다. 이 서간문은 『김팔봉문학전집』에 실려 있지 않다.

19) 김기진, 『나의 ‘토월회’시대』,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Ⅱ, 문학과지성사, 1988.8.21, 425쪽.

20) 첫 회합을 4월인가 5월에 가지고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이 아마 지금 서울 지구 시에이시에 근무하고 있는 박승목형에게는 있는 성 싶다. ... 금정 18번지에서 회합을 가졌을 때, 김명순은 그의 부군 임노월과 함께 와서 시 낭독을 하고, 파실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과를 집어 들고서 칼로 껍질을 벗기는 것을 보고는 “당신은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냥 잡숫구료. 그 빨간 곱고 고운 껍질을 벗겨버리

연극을 하기로 뜻을 모으고 각본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김명순은 이 시점에서 귀국했으나 희곡 『어붓자식』은 토월회를 의식하고 썼을 가능성이 있고 소설 『피를 뿜는 여자』를 각색하여 각본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어붓자식』의 주인공이 폐를 앓아 피를 뿜는 여자가기 때문이다. 토월회 첫 공연에서 여배우를 구할 때, 김명순에게 부탁하여 한 사람은 해결되었다고 해도 세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쓴 것을 보면²¹⁾ 김명순이 토월회와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기진은 『피를 뿜는 여자』가 아니라 『어붓자식』을 가지고 비평을 한다. 그에 의하면 자신이 제시한 작품들 중에서 정독할 것이라고는 『어붓자식』밖에 없다고 했다. 그 스스로 김명순의 작품은 ‘눈에 띠일 때에만 잠깐잠깐 보아 넘긴 일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 『어붓자식』도 당시에 적은 일기에 의거해서 겨우 남아있는 기억으로 평을 한다고 썼다. 그의 무책임한 관점을 보여주는 말이다. 토월회무대에 올릴만한 작품인지 검토했는지도 모른다. 『어붓자식』은 “재산 있고 양반인 조선의 소부르주아계급자의 가정의 동요를 배경으로 한 유한계급의 감정의 유희를 그리어” 낸 것이라 하고, 저급한 저회(低回·속세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여유를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조망하려는 취미·필자 주)취미와 흐리멍덩한 현실긍정의 속정주의와 조선 제(朝鮮製) 데카당스 취미의 고취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낸다. 저급한 저회취미는 무엇이며 흐리멍덩한 현실긍정은 무엇인가? 데카당스가 조선체로, 또 등장했다. 김기진의 김명순의 문학에 대하여 쓴 용어를 보면 퇴폐, 데카당스에 집중되어왔는데 이번에는 소부르주아, 유한

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던 것을, 그 후에 다른 동인들이 몹시 부러워하던 일도 지금엔 아득히 추회되는 한 구절의 세레나데 같다. 그해 겨울에 김명순 부처는 귀국하여버리고… 김기진, 앞의 책, 425~426쪽.

- 21) 김기진, 『나와 토월회시대』, 위의 책, 427쪽. 김명순은 토월회의 무대에 서지는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박명진의 논문은 유민영의 글을 인용하여 1927년에 김명순이 종합예술협회의 연극무대에 섰다고 한다. 이 시기에 영화 <광랑>에 출연하기로 한 행보를 보면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박명진, 『탄실 김명순의 희곡연구』 『어문론집』, 27집, 중앙어문학회, 1999, 192쪽.

계급의 감정의 유희라는 용어가 추가되어 나왔다. 그는 이러한 문인을 “소위 예술이니 무엇이니 하는 서푼짜리 문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김기진은 1922년 3월 월탄 박중화에게 쓴 서간에서 “형이 과연 팔봉을 이해하시고 팔봉을 기대하시는 곳이 있거든 소위 예술이니 무엇이니 하는 서푼짜리 문사들의 머리 위에 바늘을 한 개씩 꼽아 놓으소서. 말이 너무 과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월탄형! 우리는 반드시 남들의 지나온 역사의 발자국을 밟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남들의 만들어놓은 상아탑 속에서 낚아가는 관을 쓰고 배고픈 꿈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개념을 따다가 모방하면서 미를 슬프게 부르짖는 인생들 위에 저주가 내리어라!)”²²⁾

소위 예술이니 무엇이니 하는 서푼짜리 문사와 남의 개념을 따다가 모방하면서 미를 슬프게 부르짖는 인생들 위에 저주가 내리어라!(밑줄 인용자) 김기진은 자신이 한 이 말을 김명순에게 실천했고 그것이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이다. 남들이 지나온 역사의 발자국을 생략하기 위해 급진적 실천을 하다 보니 김명순이 선택되었고 것처럼 잔혹한 글쓰기가 되었다. 김명순의 문학은 그 성격이 아직 규명되어있지 않다. 김명순의 문학이 유희주의라는 범박한 평가는 이미 있어왔지만 필자가 발굴하여 쓴 단편 『선례』에 국한하여 본다면 유희주의의 계열인 표현주의 소설로 주목되었다. 김기진의 『손님』비평 등을 보면 김명순의 소설을 사담소설, 퇴폐적 문학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김명순을 멸절할 문사에 올린 듯하다.

2.3. 김명순에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 낙인

김기진의 공개장은 인물론으로 들어가서-문학론도 결국 인신공격이었지만- 김명순의 가계를 들춘다. 평양태생으로 어머니가 애매여성성이었으며 김명순은 의붓자식이다! 라고 공표한다. 어머니의 혈관에 흐르는 나쁜

22) 김기진, 『팔봉 김기진씨의 서한』, 『삼천리』, 1938.10, 86쪽.

피, 고모(이모의 잘못일 듯) 들의 나쁜 피가 흘러 그를 뱀랑굴락하고 퇴폐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우울과 퇴폐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하여 히스테리가 된 나머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주인공 권주영이 자신을 모델로 했다고 ‘명언’하는데 이것을 ‘신용한다면’ 그로 하여 히스테리가 더욱 맹렬하여졌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래 동안 생각해 보았는데 이 말은 김명순 당신은 권주영과 ‘다르다’ 권주영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다음 이어지는 말 역시 해석이 쉽지 않다. “‘히여간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이성을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은’ 김명순의 성격이라든지 또 무슨 다른 점을 위하여서이든지(무슨 말인지? · 필자 주)간에 대단히 좋지 못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는 “나는 성욕 적 생활에 무절조 하다느니 보다도 방종하게 지내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을 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단도 직입적으로 김명순을 성욕적 생활에 무절조한 사람으로 광고한다. 이런 까닭에 김명순의 성격이 방만해졌다고 한다. ‘방만해진’ 성격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독자는 “나는 성욕 적 생활에 무절조 하다느니 보다도 방종하게 지내던 사람으로.” 의 ‘방종’이란 말에 질려서 ‘방만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다.

김기진은 나카니시소설의 ‘성욕 적 생활에 무절조 하다느니 보다도 방종하게 지내던 사람’ 권주영을 흠모하여 “주영이가 그리웁다. 주영이는 남쪽에 있느냐? 아니다 북쪽에 있다. 주영이는 죽었으나 주영이는 살아있다. 한 사람의 주영이는 죽었으나 몇 사람의 주영이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아-주영이는 북쪽에 있다. 바람찬 북쪽에 다시 그리워진다.”²³⁾ 라고 거듭 권주영을 흠모해 마지않는다. 그런데 김명순 자신이 주장했듯 ‘권주영보다 훨씬 깨끗한’ 김명순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깎아내린다. 김기진의 기준은 “성욕 적 생활에 무절조 하다느니 보다도 방종하게 지내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만하지 않’은데 방점

23) 김기진, 『프로므나드 상티망탈』, 『개벽』, 1923. 7, 『김팔봉 문학전집』 II, 앞의 책. 425쪽; 『마음의 폐허』, 『개벽』, 1923.12, 『김팔봉 문학전집』 IV, 246~250쪽.

이 놓인다. 두말할 것 없이 유태주의 예술관을 지니고 문학을 하는 김명순은 방만한 사람이고 권주영은 성적으로 방종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 ‘홀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다. 그런데 “성욕 적 생활에 무절조 하다느니 보다도 방종하게 지내던 사람”에 김명순을 갖다 붙임으로써 김명순은 영원히 ‘성욕에 무절조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²⁴⁾ 이것이 팩트다. 이후 김명순은 천하에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가 되고 만 것이다.

이어지는 『김원주씨에 대한 공개장』에서 드러내놓고 남성편력이 자유롭고 화려했던 김원주에게는 ‘건실한 정신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말한다. 김원주(일엽)에게도 ‘임노월과 동거하면서 쓴 김일엽의 감상기 한 편을 가지고 조롱에 극하는 글을 써냈’²⁵⁾지만 “평안도 여성으로는 가장 순실한 맛이 많은 여성이다. 그리고 그의 장점은 ‘근(勤)’이라는 것이다. 펍 부지런하다” 운운²⁶⁾해서 김명순에 비하면 칭찬에 가까운 글을 썼다. 김원주는 유태주의니 무어니 그런 문학과는 관련이 없는 문인이다. 게다가 김원주는 『신여자』를 발행한 이론테면 문단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다. 그런 권력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문학으로만 대응하려던 김명순은 그렇기에 위험인물이었다. 김기진이 김명순에게 가혹했던 만큼 역으로 김명순문학의 위상은 그 높이를 증명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제도적 장치인 『청춘』 현상문예당선 작가란 당시에 얼마나 우러러보이는 존재였을까. 그러므로 임노월 등을 멸절하기 위한 공격의 과녁으로 김명순이 선택(?)됐다.

김기진의 ‘공개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평안도 사람의 기질과

24) 이명운, 『김명순편』(『홀러간 여인상』)을 보면 김명순은 애욕의 화신으로 그려 있다. 김명순에 대한 자료를 전혀 참조하지 않고 상상에 의해 쓰인 글인데 그 기초는 바로 이 김기진의 미디어테러 공개장이다. 이 과장이 얼마나 오래 이어져 갈 것인지 생각하면 아득하다. 이명운, 『김명순편』, 『홀러간 여인상』, 인간사, 1956.1.30, 209~304쪽.

25) 서정자, 『축출과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김명순의 문학』,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 2010, 29쪽.

26) 김기진, 『김원주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11, 54쪽.

곧고도 자가 방호하는 성질이 많은 천성과 여성 통유의 애상주의에다 연애 문학 서류의 핑키 칠을 더해 의붓자식이라는 환경으로 구부정하게 휘어져 처녀 때에 강제로 남성에게 정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한층 히스테리가 된데다 외가 어머니의 불순하고 부정한 피의 흐름에 따라서 그의 동정은 일관되지 못하며 그것이 그의 문학과 인격에 나타난다.”고 반복 정리까지 한 다음 김명순이 유미주의 문학을 한 것은 잠시 동서하였던 임노월의 영향일 뿐이라고 단정하는 모욕을 잊지 않는다. 모든 여성은 그처럼 남성에 따라 생각이나 지향이 쉽게 달라진다는 일반론을 펼친 다음 김명순은 ‘이미’ 과거의 여성이며 해바라기의 꽃이 떨어지듯이 시들 것이라는 폭언으로 확인사살을 한다. 너무나 집요했다고 할까.

이 공개장의 과문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 중에 김명순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김명순이 보였다는 치가 떨릴 정도의 모습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각주27참조) 그해(1924) 『개벽』 송년호 목차 뒤 두 페이지에 걸친 『신여성』 송년호 광고를 보면 “과천황의 호평지 『신여성』 송년호의 장관”이라고 특대호 활자로 제목을 뽑고 ‘공개장문제’를 따로 크게 기획을 해서 김명순의 『김기진씨의 공개장을 무시함』과 함께 『공개장으로 본 우리 사회상』 『공개장을 읽고』라는 세 꼭지의 글이 실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막상 출간된 『신여성』 송년호에는 이 세 사람의 글이 실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여성과 공개장문제’가 “신여자 문제 대 야화(夜話)회”기획의 작은 아이템으로 크게 축소되어 목차에만 실리고 본문에서는 그나마 삭제되어 한 자도 실리지 않았다.(빈자리가 반단 20행 넓이에 불과하다) 공개장의 ‘공’자도 실리지 못한 것이다. 김명순의 항의와 반격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는지 알 수 있다. 『탄실이와 주영이』에는 탄실이 일본 건너갈 때 ‘이리새끼나 호랑이새끼 같았다’는 표현이 나온다. 데이트폭력을 당한다음에 김명순이 보였을 태도가 상상이 된다.²⁷⁾

27)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김명순문학전집』, 서정자, 남은혜 편, 푸른사상, 474쪽.

2.4. 살아남기 위해 낸 『생명의 과실』

김명순은 「김기진의 ‘공개장’을 무시함」이 『신여성』에 실리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첫 창작집 『생명의 과실』을 출간하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김기진의 신사상에 공명하는 주인공을 그린 소설 『손님』(『조선 문단』1926.4)을 써서 자신의 문학을 이어나가려 인간힘을 쓴 것처럼 보인다. 김명순의 문학은 이제 끝났다고 공언했던 김기진은 이 소설에 대하여 ‘호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김명순은 김기진이 왜 자기를 그토록 모함하며 미디어테러를 했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팔봉 김기진의 평 전문이다.

『손님』은 김탄실여사의 초고 그대로의 발표이다. 말하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다. 따라서 평이라느니 보다는 감상(感想)으로 몇 마디를 적어보겠다. 이 일편은 여기에 기록된 4편(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전유덕)중에서 가장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월여사가 단 한 개의 사건을 그린 것에 대해서, 탄실여사는 한 개의 사상 혹은 관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주인성이라는 손님을 통해서-작자의 사상이라고 말할까-작자의 사상을 말하게 한 뒤에 거기에 공명하여 이끌어가는 혹은 감화되어버리는 삼순의 심리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 작자의 주안(主眼)이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이것을 소설이라고(원문대로) 평하는 것이 아니라 투르게네프의 ‘버진소일’을 읽고 나서 적어놓은 듯한 여사의 감상문으로 보고서 필자 자신의 감상을 조금만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나는 이 일편에서 여사의 일 전향을 발견하였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담소설(私談小說)-말이 좀 어색하나-의 냄새가 있으나 그러나 여사의 저작의 대부분과 같이 순전히 사담소설이 아닌 것과 보기도 싫은 ‘텔리컷’도 아닌 작자 자신의 말초신경의 활동이 없는 것과 여사자신이 삼순이가 되어있는 등-이상의 여러 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주씨는 여사가 삼순이로 하여금 말하게 한 바와 같이 소로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여사자신은 삼순이가 되어가지고 소로민과 마슈리나의 결합을 지었다. 다만 요만한 사실이 즉 여사자신의 내적 전향이 여사에게 있어서는 의의 있는 건강한 즐거운 일인 것을 말하고서 존경의 의를 표할 뿐이다.²⁸⁾(밑줄 인용자)

김기진의 내면을 섬세하게 살피기 위해 전문을 옮겼다. 김기진이 김명순의 문학에서 비난하고자 한 요점은 바로 사담소설, 보기도 싫은 텔리컷, 자신의 말초신경의 활동이었던 것이다. 투르게네프의 『처녀지』를 읽고 그 사상에 공명한 것은 바로 김기진이 바라던 바였다. 그가 공개장에서 그토록 막말을 남발했던 것을 잊은 듯이 “여사자신의 내적 전향이 여사에게 있어서는 의의 있는 건강한 즐거운 일인 것을 말하고서 존경의 의를 표할 뿐이”라고 했다. 김명순은 그러나 ‘전향하지 않는다.

김기진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급한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²⁹⁾ 23년 무렵에 술김에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시기는 하되)술 취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으며 자신과의 이 약속을 50년 동안 지켰다고 한다. 급한 성질의 이면에 의리나 정의감도 있는 그런 성격인 듯하다. 그 자신 예술지상주의를 추수하다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붉은 흙에 싹트는 것』,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읽고 크게 감동하여 사상적 전환을 했다. 로망롤랑과 앙리 바르뷔스를 읽고 마생구를 만나 자신이야말로 조선으로 가서 일본의 ‘씨 뿌리는 사람’처럼 씨 뿌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다. 김기진은 방정환과 백종동인이었는데, 방정환의 권고로 『개벽』에 신경향파 성격의 글을 여러 편 썼다. 이광수 김기진 방정환 등의 반 유태주의 논리와 자신의 사상에 따라 급한 성질 그대로, 서푼짜리 문사의 머리에 바늘을 꽂기 위해, 저주를 내리기위해, 공개장을 쓴 것이다. 마침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가 『매

28) 김기진, 「4월창작란」, 『조선문단』, 1926.5, 14~15쪽.

29) 김기진, 「나의 회고록」, 『편편야화』, 앞의 책, 187쪽, 342쪽.

일신보』에 이익상의 번역으로 연재되고 있었으며 김명순이 이 소설의 모델이라는 소문과 이에 대항하여 쓴 김명순의 『탄실이와 주영이』(『조선일보』연재)가 오히려 김명순의 데이트폭력을 화제에 오르게 한 그런 상황이었다. 자기가 도쿄에서 목격한 김명순, 김원주와 임노월의 관계도 있겠다, 김동인도 인정한 예술지상주의 작가 김명순을 ‘멸절’하기 위해 이광수 방정환 등과 연대하여³⁰⁾ 이런 너무나 지나친 글을 쓰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너무나 컸다.

3. 대항서사 『탄실이와 주영이』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너희들의 등 뒤에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김명순의 문학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직접 김명순의 문학에 영향을 미쳤기보다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에 영향을 받은 김기진과 독자들로 하여 김명순이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이다. 또한 권주영이 김명순을 모델로 한 주인공이라는 소문은 김명순이 이에 대하여 다시 대항서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김기진이 공개장을 쓰기 전이다. 『탄실이와 주영이』는 그렇게 쓰인 것이다. 김명순이 권주영과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항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소설은 끝 부분을 확인할 수 없게 신문이 일실되어 미완으로 되어있다. 또한 중간에 일실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이 소설은 김명순의 전기적 자료로 많이 참고 되었다. 이 소설이 미완으로 보이지만 소설의 서두에 이소설의

30) 박화성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면 1925년 1월 『조선문단』에 『추석전야』를 이광수 추천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로 등단한 박화성은 어찌 알았는지 적선동으로 찾아 온 김명순이 함께 가자고 해 이광수를 집으로 방문한다. 병환중의 이광수와 그 부인은 박화성과 김명순의 방문에 대해 탐탁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했으며, 오는 길에 김명순은 “기진이 그 ×× 참 나빠” 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박화성, 『내 삶과 문학의 여적』, 한라문화, 18~20쪽.

주요한 줄거리가 나와 있어 소설로 논의할 만 하다. 지금까지 김명순 연구에서 이 점을 놓쳐온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액자소설인 이 작품은 도입(액자)부분에서 탄실, 리수경, 지승학, 김정택이 등장해 탄실의 데이트폭력을 당한 이후의 심경과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너희들의 등 뒤에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이 대화 중에 탄실의 생각이, 또는 이 소설을 쓰려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 작가는 우선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너희들의 등 뒤에서』가 부분적으로 김명순의 환경과 일치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 부친이 남의 빚 담보를 했다가 패가를 한 것은 거진 같은 일이고 또 청산 근처에 있던 일과, 조선사람인 일본 군인의 집에 붙어 있던 일도 근사”해 마치 “그 작자를 서모 집 사랑채에 세(貰)로 있던 청년인가 부다,” 말할 정도라는 것이다.

다음, 김명순은 마치 김기진의 내면을 들여다 본 것처럼 손에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汝等の背後より』를 든 리수경이 자신이 가진 사상-사랑을 기초로 하고 그 꿈을 시화한다는, 예술지상주의-과 통일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조롱한다. 내부적 혁명가인 탄실을 외부적 혁명가인 권주영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묻는다. 『汝等の背後より』의 권주영은 김기진처럼 예술지상주의를 신봉하는 대부분의 문인지망생들에게 것처럼 큰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 김명순은 이미 그런 젊은이들의 존재와 시류를 추종하는 작태를 잘 알고 이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김기진의 공개장이 나오기 전에 김명순이 이렇게 지적한 대목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탄실이와 주영이의 다른 점을 비교해 놓은 대목이다. 표로 정리해본다.

	탄실	주영
	조선사람이면서 일본사람의 생활과 감정에 동화된 조선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다.	이기주의자인 일본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속아 원수를 갚는다고 이를 간다.
	일본 갈 때는 어디 일본 사람은 얼마만한가 보자, 하고 시험적으로 간 것이오 그리고 일본사람을 숭배하지도 않았었으니까. 아무 이익을 바라지 않고 병목(나미키)이든지 심지어 일본 인력거꾼에게까지 속아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탄실이 자신이 어떤 때는 일본 사람 이상 이기주의자이니까. “그 애가 일본 건너갈 때를 생각하면 그건 양의 새끼 같은 착한 여자가 아니고 이리새끼나 호랑이새끼 같았지.”	일본으로 갈 때는 다만 법을 배워서 일본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갔다.
	탄실은 대동강가에서는 제일 호사하는 호화로운 집에서 자라났다.	주영이는 중류이하의 가정에서 초라하게 자라났다
	결코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시는 육체적관계도 맺지 않으려하면서 강제로 한 남자의 일평생 행복을 휘지부지해주려고 했던 것. 이소위와의 사건에 대하여.	주영이는 탄실이보담 더 불상할 뿐 아니라 비교하지 못하리만큼 육체가 더러워졌다. 그리고 어떤 편으로 보아도 주영이는 탄실이보담 어리석다. 그리고 탄실의 교만함과 욕심스러움을 못가졌다.
	XX(中西·필자 주)가 그 책을 쓴 것은 우리처지로 보아서 불찬성이다. 우리는 못났지만 그것을 감추고 싶지 않으니까 그는 그 책을 쓰고 자기의 우월함을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영이같은 여자를 조선이 낳을지 말지 하다. 조선여자는 게으르고 겁쟁이이면서도 약하다.	조선여성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아모 경로도 없이 조선사람 보담 그들이 얼마나 높이 보여서 꼭 법률을 공부해서 일본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한 여자가 그렇게 쉽게 하필 일본 군인을 온천에 까지 따라가 자기 동정을 깨트리게 했다. 주영이로 말하면 우리나라 제기 여학생이 아닌가. 그들은 연애고 뭐고 염두에 없고, 아닌 체 하면서도 절개를 꼭 간직했다가 명예 있고 재산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손끝에 물 튀기면서 호강하는 것을 제일로 알았다.
	조선이 주영이같이 용기 있는 여자는 못 낳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저주하고 무함해서 서로 망하는 탓이다.	그리고 보면 주영이는 일본여자다. 그들같이 남자의 계급을 가리지 않고 정조관념이 없고도 한편으로는 독한 여자가 없다.

『탄실~』작가의 의도	“그러면 김선생, 내가 영매를 주인공으로하고 소설을 지으면서 조선사람의 일부를 그려내 보면 어떨까요? 그려할 것 같으면 XX가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쓸 때 저희 나라사람의 잔학함을 쓴 것과 같이 우리나라사람의 간사스럽고도 겁 많고 어리석고 약한 것을 마음대로 들추어 볼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을 쓰고 자기의 우월함을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의 등 뒤에서라는 책은 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쓴 책은 결코 아니고 조선 전체를 동정해서 일본사람인 XX가 일본사람의 처지에서 반성하노라고 쓴 것일 것입니다.
-------------	---	---

김명순은 주인공 탄실이와 권주영의 차이를 밝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려 했다. 권주영은 “일본여자다. 그들같이 남자의 계급을 가리지 않고 정조관념이 없고도 한편으로는 독한 여자가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나 “주영이는 탄실이보담 더 불상할 뿐 아니라 비교하지 못하리만큼 육체가 더러워졌다.” 그럼에도 김기진은 이 글을 읽지 않은 듯 주영이와 비교할 수도 없다는 암시 아래 김명순을 창녀와도 같이 매도했다. 김기진의 공개장이 김명순의 미디어테러의 원류가 된 소이이다. 남은해도 논문에서 지적했지만 이 『탄실이와 주영이』는 자전적 소설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든지 소설이다.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처럼 등장인물의 과거를 하나씩 되돌아보는 형식을 본 떠서 주인공 탄실의 과거를 그려놓았을 뿐이다. 그 증거의 하나가 어머니 산월의 존재다 김명순의 생모는 김명순의 12세 시, 서울 진명여학교 1학년에 입학할 당시 3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 사실은 유족의 증언이므로 확실한 것이다.³¹⁾ 소설의 어머니 산월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일부만 사실일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32년, 그러니까 김기진의 공개장 파동이 있던 뒤, 김동인은 종적을 찾을 길 없는 김명순을 그리며 『매일신보』 「적막한 예원」에 「탄실 김명

31) 김명순, 『김명순(1986-1951)-그가 살아간 길』, 김상배 편,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솔피, 1981.10.21, 유족과 직접 만나 증언을 들어 편한 이 책은 여러 면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유족의 증언과 희귀한 사진 자료가 수록되어있다. 구석봉의 기록은 김명순이 서녀가 아니라고 증언했지만 이는 김명순의 문학작품을 참고해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순』을 썼다. 김명순이 기고할 매체를 잃고 밥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그는 좀 도와주었을까? 1939년 『김연실전』을 써서 김명순을 다시 한 번 곤경에 빠지게 한 김동인은 이 『적막한 예원』에서 김명순을 여성문인 중에 어떤 레벨에 올라간 유일한 문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여기 김명순의 자량이 있다. 조선에 글을 쓰는 여인들이 그 사이 꽤 많이 난 가운데서 기분이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알고 있는 유일인이 그였다. 지금부터 15,6년 전 <청춘>의 현상에 2등인가 당선(3등 임·필자 주)된 그의 『의문의 소녀』(『의심의 소녀』의 잘못·필자 주)에도 그 전편을 덮은 신비적 기분이 있었던 붓도 상당히 세련된 솜씨였다. 조리의 기능도 상당하였다. 말하자면 여류로서 어떤 레벨까지 올라갔던 유일인이었다.³²⁾

김동인이 이 『적막한 예원』연재에서 언급한 문인은 전영택, 김명순, 나도향, 최서해, 현진건, 김소월과 이장희 김석송 홍노작 주요한 김동환 주요섭 이효석 등이다.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은퇴 또는 사망한 문인들을 거론한 것이지만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한 문인들이다. 이광수가 예술지상주의로 적시한 문인은 안서, 월탄, 상섭 빙허 노월 김명순, 김찬영 등인데³³⁾ 이 모든 이들 중에서 김기진이 김명순에게 보낸 공개장에 준할 필봉을 휘둘러 공격한 문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4. 공개장에 대한 백년만의 반론-나오며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은 김명순에 대한 미디어 테러의 원류다. 김명순은 1차 일본에 유학하여 국정여학교에 재학할 당시 일본육

32) 김동인, 『적막한 예원』, 『매일신보』, 1932.9.28.

33) 이광수, 『우리 문예의 방향』, 『조선문단』, 1925.11, 86쪽.

사출신 이응준소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다. 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김명순은 졸업시험까지 치르고도 졸업생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탄실이와 주영이』의 기록에 의하면 탄실이 어디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선생들이 졸업장을 주지 못해 신문사에 가서 묻기도 하고 기숙사에 탐지도 하는 중에 추악한 일이 들출수록 나왔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매일신보』에 연일 보도된 것이 김명순이 정조 잃은 여자로 소문이 나게 된 경위이다. 이로부터 김명순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소설에서 주인공을 사랑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 자세로 일관하게끔 그렸다. 미디어에 의한 폭력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나 김명순에게 미디어테러라고 할 만한 사건은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발표이고 이는 이후 이어진 미디어폭력의 원류이다.

지금까지 김기진의 공개장은 단지 기생출신 소설의 딸이라는 김명순의 신분에서 따른 가십 정도의 글로 이해되어 왔으나 사실은 김명순의 문학과 삶에 미친 영향으로 볼 때 보다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치명적이고 계획적이며 음모적인 글이었다는 점에서 집중 연구를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김명순과 김명순문학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 것은 데이트폭력보다도 김기진의 공개장이라고 나는 본다. 김명순을 성적으로 모독하며 쓰인 공개장이 김명순의 이미지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 본 결과 주목된 것은 첫째, 김기진의 김명순 죽이기의 성폭력적문장이다. 김명순의 문학을 나이로 치면 30대내외의 중년여자, 피부로 치면 욕욕에 거친, 윤택하지 못한, 지방질은 거의 다 말라 없어진, 퇴폐하고 황량한 피부가 겨우 화장분의 마술에 가려서 나머지 생명을 복돋워가는 그러한 피부라 비유하여 문학비평이 아니라 성 폭력적 모독의 수사학을 구사했다. 둘째 이 피부에 대한 비유는 바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여동의 등 뒤에서』의 비유를 거의 그대로 표절하였다는 점이다. 김명순을 죽이기 위해 일본 작가의 여성에 대한 폄하적 표현을 반성 없이 그대로 빌렸다. 셋째 김기진이 공개장을 쓴 것은 유타주의 작가 임노월 등을 표적한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이광수가 멸절 운운한 유타주의 계열의 작가로 지목한 문인이 안서,

월탄, 상섭 빙허 노월 김명순, 김찬영 등인데 유독 임노월을 표적하여 김명순을 공격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의 계획적, 음모적 부분은 명백하다. 남성작가를 겨눌 수 없으니 김명순과 김일엽 두 여성작가에 대한 공개장을 한꺼번에 맡아 우회적으로 유포주의자 임노월을 공격하였다. 죽은 것은 김명순이었다. 넷째 김기진은 이 글에서 스스로 김명순과 토월회에서 만난 처지임을 고백하였다. 「피를 뺨는 여자」를 낭독해 들리었다는 대목이다. 찾아보니 함께 토월회를 했으며 회원들은 돌아가며 작품 낭독을 했다. 김명순의 재능을 익히 알았을 터인데도 그는 김명순문학을 죽이려 나섰다. “소위 예술이니 무엇이니 하는 서푼짜리 문사들의 머리 위에 바늘을 한 개씩 꼽아 놓으소서...남의 개념을 따다가 모방하면서 미를 슬프게 부르짖는 인생들 위에 저주가 내리어라!” 목청을 높인 김기진은 그 바늘을 여성작가에게만 꽂았다. 남의 개념을 따다가 모방하면서 미를 슬프게 부르짖는 인생...은 월탄이며 김기진 바로 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길을 걸어왔었다.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가 이익상에 의해서 『매일신보』에 번역 연재되면서 김명순이 권주영의 모델이라는 소문까지 돌아 ‘말할 수 없이 육체가 더러워진’ 권주영과 얽혀드는 것에 테이트폭력의 피해자 김명순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대항서사 『탄실이와 주영이』를 썼고 주인공 탄실이를 통해 자신과 권주영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 소설로 대항했으나 김기진은 ‘읽지’않은 듯하 공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30여회 연재한 소설을 계속 찾아 읽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탄실이와 주영이』는 자전적 소설이기는 하나 전기는 아니다. 어머니와 사별한 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있듯이 소설적 구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이응준소위에 해당하는 태영세의 테이트폭력 부분이 일실 되거나 쓰이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지만 다행히 김명순은 소설의 도입(액자?)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충분히 말해놓았다. 김명순 소설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김기진이 쓴 공개장에 분노한 김명순의 반박문은 실리지 않았다. 『신

여성』 송년호 편집후기는 김명순이 “사실이 전부 틀리어 없는 말을 조작한 것이 많고, 전부 앞 뒤 말이 맞지 않아 모순뿐인 것을 들어 부인하는 말씀이 있고 또 변명과 반박에 관한 원고가 왔다.”고 했다. 말로 항의하고 글로도 써가지고 왔다는 말이다. 이 글은 그리하여 백년 만에 쓰인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의 반박문이다.

그러나 이 글은 김명순의 소설 『선례』를 발굴하여 김명순 문학의 지평을 넓힌 데 이어 김기진의 이런 성 폭력적 인물평, 미디어 테러가 이후 백년간 김명순에 대한 부정적 비평의 원류가 되어 여기저기 반복 게재되어왔음을 밝힌, 한 작은 항의에 불과하다. 남성들의 연대는 눈이 부시다. 반면에 김명순은 혼자였다. 문인들이 나카니시 이노스케에 빠져 내부적 혁명가인 탄실이를 외부적 혁명가인 주영이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을 비판한 김명순³⁴⁾, 사상이 통일 되지 않은 문인들의 좇대 없는 행동을 비판할 정도의 비평안을 지닌 김명순도 김기진의 막말비평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김명순은 “오해와 저주의” 열매 『생명의 과실』을 출간하고 늘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공부하는 자세 그대로 『손님』을 쓰기도 했으나 김기진이 바라는 ‘전향’은 하지 않았으며 ‘김명순의 문학’을 지켰다. 그러나 문학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조선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명순은 결국 일본으로 떠나고 만다. 김명순연구가 작품발굴에서부터 문학세계 규명까지 기초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저기 논의된 글들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그 원류인 김기진의 미디어테러가 엄청난 음모의 결과였음을 밝혀 이제 김명순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고 그의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두에서 썼듯이 11월25일은 세계여성폭력철폐의 날이었다. 인도여성들이 염산테러를 당하고 상처 받은 얼굴을 들고 세계여성폭력철폐의 날 기념 패션쇼에 나란히 선 사진을 보니 건디기 어려운 미디어 테러를 혼자 당하고도 꾀없이 문학으로 대항하였던 김명순의 얼굴이 그 위에 오버랩 된다.

34)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전집, 473쪽.

참고문헌

1. 자료

김명순, 『김명순문학전집』, 서정자 남은혜 편, 푸른사상, 2010, 1~856쪽.

김명순,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김상배 편, 솔피, 1981, 1~405쪽.

2. 단행본

박화성, 『내 삶과 문학의 여적』, 한라문화, 18~20쪽.

이명운, 『김명순편』, 『홀리간 여인상』, 인간사, 1956. 209~304쪽.

최혜실,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352쪽.

나카니시 이노스케, 『너희들의 등 뒤에서』, 박현석 역, 현인, 2017, 314-315쪽.

3. 논문

김기진, 『우리가 걸어 온 30년』, 『김팔봉문학전집』 II. 회고와 전망, 문학과 지성사, 1988, 131쪽.

_____,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11, 47쪽.

_____, 『김원주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11, 54쪽.

_____, 『팔봉 김기진씨의 서한』, 『삼천리』1938. 10, 84~87쪽.

_____, 『나의 ‘도월회’시대』,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 II, 문학과지성사, 1988, 425쪽.

_____, 『프로므나드 상티망탈』, 『개벽』 1923. 7, 『김팔봉 문학전집』 II, 425쪽.

_____, 『마음의 폐허』, 『개벽』1923.12. 『김팔봉 문학전집』 IV, 246~250쪽.

_____, 『4월창작란』, 『조선문단』, 1926.5, 14~15쪽.

_____, 『나의 회고록』, 『편편야화』, 전집 II 187쪽, 342쪽.

남은혜, 『김명순문학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19쪽.

박명진, 『탄실 김명순의 희곡연구』, 『어문론집』27집, 중앙어문학회, 1999, 192쪽.

방민호, 『사랑과 절망과 도피의 로망스-한국 최초의 예술지상주의자 임노

월소설집, 임노월소설집 『악마의 사랑』 해설, 향연, 2005.10.24, 159~162쪽.

서정자, 『일엽 김원주 · 『신여자』 · 그의 사상 다시 읽기』, 『나혜석연구』 제2집, 나혜석학회, 2013.6.30., 33~73쪽.

_____, 『축출과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김명순의 문학』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 2010. 20~21쪽, 29쪽.

_____, 『김명순의 발굴소설 『선례』고』, 제10회 소영 박화성문학페스티벌, 김명순 탄생 12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2016, 10.22, 『여기』, (사)부산여성문학인회, 통권 32호, 2017. 봄호, 38~55쪽.

신혜수, 『김명순문학연구-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9.7. 157쪽.

4. 기타

김동인, 『적막한 예원』, 『매일신보』 1932. 9. 28.

이광수, 『우리 문예의 방향』, 『조선문단』 1925.11, 86쪽.

임종국, 『모델소설과 작가의 기능』, 『한국문학』 1976.8.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open letter for Kim Myeong Soon」 by Kim Gi Jin

- The roots of one hundred years media-terror for Kim Myeong Soon

Seo, Jung-Ja

「The open letter for Kim Myeong Soon」 by Kim Gi Jin was the origin of media-terror for Kim Myeong Soon, who was a dating violence victim. When she was a student at the Kukjeong Women's School in Japan, she experienced violence on a date with Lee Eung Jun from the Imperial Japanese Army Academy. 「The open letter for Kim Myeong Soon」 by Kim Gi Jin, however, put deadly Kim Myeong Soon's life and literature in pain more than the 1stdatingviolence. As a result of this open letter, Kim Myeong Soon not only could not continue working as a writer, but she was also branded as a lady of easy virtue, so she suffered social ostracism for one hundred years.

Until now, the open letter by Kim Gi Jin was considered as gossip about Kim Myeong Soon based on her social status as a daughter of a Korean geisha. In fact, this letter was an intentional plot to damage Kim Myeong Soon's life and literature. When we thoroughly examined 「The open letter for Kim Myeong Soon」 by Kim Gi Jin, we abstracted the 4 unethical features as follows: First, Kim Gi Jin used a rhetoric of sexual violence that could have a deadly defect for a woman for the purpose of killing Kim Myeong Soon. He also made use of a rhetoric of sexual violence to insult Kim Myeong Soon's literature, personifying her works as a middle-aged woman over the

age of thirty with bad skin who had sexual desires. This personified woman was not glossing and was scrawny, degenerated and deserted, so it was suggested that she should be covered by the magic of toilet powder for hilling up the rest of her life. The second unethical feature is that, this skin metaphor plagiarized a metaphor from 『Behind of you』 by Nakanisi Inosche. Third, the reason Kim Gi Jin wrote the open letter was for the aesthetic author Im No Wol. This reveals the intentional and conspiratorial purpose of the lesster, he could not point his finger at a male writer, so he circuitously attacked Im No Wol by talking about two female writers, Kim Myeong Soon and, to a lesser extent Kim Won Ju. Fourth, Kim Gi Jin talked on the open letter that he heard when Kim Myeong Soon recited 『A Woman Spouting Blood』. So we investigated it in detailed and we found that the two writers, Kim Gi Jin and Kim Myeong Soon were the members of Towolhoe from Tokyo, so he might know very well Kim Myeong Soon's gift, however, he tried to bury her. Based on the fact that Kim Myeong Soon and Kim Won Ju lived with the aesthetic writer, Im No Wol, it was the plan to kill Im No Wol by ridiculing and trampling over the two female writers was intentional. For that, Kim Myeong Soon became considered a woman of easy virtue and was buried for one hundred years.

Key words : Kim Gi Jin, Kim Myeong Soon, the open letter for Kim Myeong Soon, sexual violent rhetoric, media terror, Nakanisi Inosche, Towolhoe, aesthetic writer, Im No Wol, 『Tansili and Juyoungi』

■ 본 논문은 2018년 3월 24일에 접수되어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